

광주·전남 대학 정시모집 '희비'...교대 경쟁률 5년새 최고

전남대·조선대 경쟁률 3 대 1 이상...다른 대학들 정원 못 채워 특성화고 졸 재직자전형 미달 속출...수시 미충원 5300명 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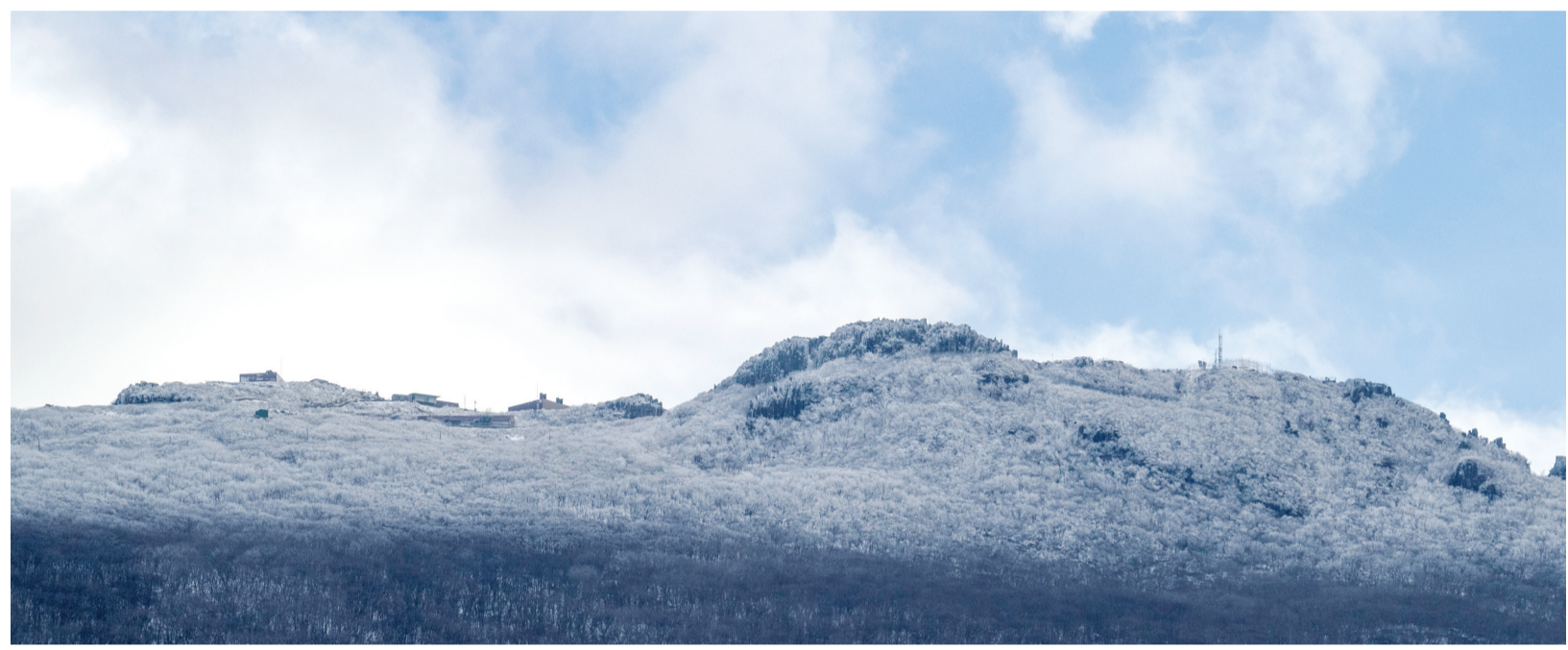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전남대와 조선대 등 주요 대학과 나머지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전남대와 조선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각각 3.48대1, 3.5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나머지 사립 대학들은 1대1 이하 경쟁률을 그쳤다. 전남대가 202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지난 6일 마감한 결과 1458명 모집에 모두 5096명이 지원해 3.5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 군별로는 나군 광주캠퍼스 수능(지역인재)전형에서 9명 모집에 62명이 지원해 6.89 대 1

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나군 광주캠퍼스 수능(일반)전형의 경우 392명 정원에 1690명이 지원해 4.31대 1로 두번째로 높았다. 의예과는 19명 정원에 117명이 지원해 6.1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35명을 뽑는 전남대 여수캠퍼스 학생부 교과(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에는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 나군 여수캠퍼스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 계약학과)전형도 50명 모집에 8명만 지원해 0.16 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조선대는 총 975명 모집에 3392명이 지원해 3.48대 1(정원내 3.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3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3.39대1(정원내 3.59대1)보다 소폭 상승했다. 조선대의 경우 가군·나군 통틀어 수능(일반)전형에서는 일본어과가 가장 높은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군 수능(지역인재전형)에서는 약학과가 5.86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치의예과 3.24대 1, 의예과 3.03대 1이었다. 조선대는 군사학과는 31명 정원에 10명이 지원해 0.32대1, 특성화고 졸업재직자전형(정원 외)은 89명 모집에 11명이 지원해 0.12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남대와 광주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1.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신입생 모집에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권 대학의 경우 모집 정원의 절반을 겨우 넘긴 대학도 나왔다. 학생 수 감소와 교권침해 문제로 인한 교직의 인기 하락에도 광주교대는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17명 모집정원에 306명이 지원해 2.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국 교대의 경쟁률도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의 평균 경쟁률이 3.14대 1로 전년(1.87대 1) 대비 크게 상승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은 올해 대입 수시모집에서 정원 5300여명을 충원하지 못하는 등 고전한 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광주 11개 대학이 2508명, 전남 10개 대학에 2847명을 수시에서 뽑지 못했다. 광주의 수시 미충원 비율은 19.2%, 전남은 34.8%에 달했다. 광주의 미충원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전남의 미충원율은 전국 17개 시·도지역 대학의 평균(14.0%)의 두 배를 넘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국교대 수시에서 수험생들이 등급컷을 충족하지 못해 이월된 인원이 크게 늘자 정시에서 합격점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지원자들이 몰려 교대의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체 연계형 학과의 미달이 속출한 것은 되짚어볼 문제다. 현장의 교육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눈꽃 핀 무등산 강한 바람이 불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로 크게 떨어진 7일 광주 무등산 정상 부근이 눈에 덮여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5·18 왜곡 인쇄물 배포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제명을”

오월단체 규탄 목소리

5·18민주화운동 유족을 비롯한 오월단체들이 최근 5·18 왜곡·편향 인쇄물을 인천시의원들에게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5·18을 폄훼하고 왜곡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제명 조치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유족회는 “허 의장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 특정 신문을 배포해 5·18왜곡금지법을 위반했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이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한 만큼, 허 의장의 행동은 국민의힘의 방침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제명을 해 5·18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5·18기념재단도 성명서를 내고 “허 의장은 비서실을 통해 5·18을 왜곡·편향한 인터넷 언론사에 찾아가 인쇄물을 가져오도록 명령하고, 동료 의원실에 배포했다”며 “매우 비상식적이며 5·18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7일 “2019년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 등의 5·18민주화운동 폭동 규정,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망언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5·18을 부정

하고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허 의장은 오월영령과 사·도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국민의힘은 허 의장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허 의장의 태도에 대해 사·도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5·18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한 특정언론사의 ‘5·18 특별판’ 인쇄물을 동료 의원 40명에게 배포했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 형태의 인쇄물에는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상담 1위 ‘임금’

지난해 전체 1187회 상담...4대보험·휴가 등 뒤이어

몸이 아파 사직한 광주지역 40대 여성 A씨는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와 같이 딱한 처지에 놓인 근로자 1054명이 지난해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에 도움을 호소했다. 센터는 A씨에게 “장시간 반복적인 자세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산업재해를 신청해보라”고 조언했다. 센터가 지난해 이들을 대상으로 1187회 상담을 한 결과, ‘임금’(36.63%) 문제가 가장 많았고, 4대보험(10.52%), 휴가(8.26%), 징계·해고(7.48%), 근로시간(6.56%) 순이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일용직과 단시간노동자는 임금분야 상담이, 기간제와 파견·용역·하청의 경우 ‘징계·해고’ 및 ‘4대 보험’ 관련 상담비율이 높았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30대 B씨는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부족한 임금을 받을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일을 한 시간을 따로 정리하고 있는

B씨를 발견한 점주가 ‘금품청산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B씨는 부족한 임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돼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센터는 “금품청산확인서 작성 목적 및 동기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확인서가 유효하면 확인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30대 C씨는 식당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안팎 일하는데 업주가 ‘15시간 미만일 때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불규칙 근로일 경우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40대 남성의 경우 ‘휴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고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회사가 제시한 해고사유와 달리 재무제표가 부정적이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신기계를 도입하는 등 사정을 봤을 때 정당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지원에 나섰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애·비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센터 완공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남구에서 문을 연다. 광주시 남구는 오는 15일 월산동 월산근린공원 반다비 체육센터 주차장에서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식’을 연다.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는 2월까지 임시 운영을 거쳐 3월 정식으로 개관한다.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은 광주에서는 2022년 8월 문을 연 북구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2022년 3월 공사를 시작한 반다비 체육센터는 사업비 163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

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상 1층에는 수영장과 체육관이 있으며 2층은 명상실과 취미실, 다목적실이 마련돼 있다. 지하 1층에는 헬스장과 다목적 공간이 조성됐다. 애초 2023년 준공 될 예정이었던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난 조사 결과 지하층 암반이 발견되면서 체육센터 건물과 주차장 부지를 변경해야 했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예비인증과 설계 적정성 검토 등 일부 행정 절차로 인해 공사 일정이 지연돼 올해 개관하게 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수목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수목장 · 가족장24시간 연중무휴☎상담문의: 062-449-4446